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의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르웨이 대사 조수아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중앙은행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짝을 이루어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코로나 시국에 겪은 경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여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4% 수준의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올해부터 ½ 수준인 1.3%로 떨어져 2025년까지 1% 초반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한 통화량은 최근 걱정스러운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동시에 높은 이자율은 구매력과 가계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간 성장률은 무려 5.7%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내내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고용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노동력 조사(LFS)에서 측정한 실업률은 5~7월 기간 동안 3.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경제 활동이 감소하여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커진 실업률은 본국의 경제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제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해결책은 피할 수 없이 중앙은행의 이자율 상승으로 시작됩니다. 이자율 상승은 중산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겠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희는 생활의 필수 요소인 가스 및 전기 가격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질 임금도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즉, 연간 임금 증가율은 2023년에 4.4%로 추산됩니다. 또한 정부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불평등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국이 제시한 “국가예산 2023”에 따르면 2023 국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공정한 분배와 사람들의 일상적인 재정을 보호하는데 예산 증액을 제시하였고 안보와 어려운 시기의 연대를 보여주는 예산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2023년 1% 남짓의 정부 지출은 2024년에는 4%로 크게 증가해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간, 세대간 경제 불평등은 전세계의 문제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국도 이 문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